

“엔딩 요정’ 등극? 후배들 응원 좋네요”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성경자 역 정혜선
드라마 갈등 쥐락펴락하며 주인공보다 맹활약



이쯤 되면 주인공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최근에는 거의 절반가량의 장면에도 등장했고, 급기야는 ‘엔딩요정’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대가족이 등장하는 주말극에서 ‘노모’ 역은 대개 회당 몇 장면 등장하지 않는다. 어쩌다 많이 등장해도 대사가 많지도 않다. 그런데 대사도 엄청나다.

“하루는 나 이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대사도 너무 많고, 주로 싸우는 연기라 너무 힘이 들어서 머리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행복하죠. 이 나이에, 또 후배들이 응원해주고 우리 팀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힘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75세의 노배우 정혜선은 이렇게 말하며 인자한 미소를 환하게 지었다. MBC TV 주말극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 재벌가 노마님 ‘성경자’를 연기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그를 최근 경기도 일산 MBC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욕하면서 계속 보는 드라마’로 설명되는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 ‘성경자’는 재벌회장(전광렬 분)의 모친으로 아들 내외, 두 손자 내외를 손아귀에 쥐고 집안에서 한껏 파위를 과시하는 인물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공가루 집안’에서 성경자는 모든 인물과 부딪히면서 드라마의 갈등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초반에는 회당 몇신 안됐어요. 2~3신 정도 나오길래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웬걸, 점점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그 늙어가는 분량을 소화해내

는 희열이 있었어요. 온종일 대사를 외우느라 힘들어도, 한 신 한 신 해낼 때 좋았어요. 그런데 20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웃음) 아무리 대사가 많아도 나는 후배들 앞에서 NG 내는 것을 차음으로 생각해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난 이 대역에서 나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난 좀 다른 선택이 되고 싶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비중 있는 역할 맡는 건 배우로서 정말 행복한 거죠. 행복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신은 너무합니다”의 실제 주인공 공은 정혜선이라는 말이 나왔다. 얼마 전에는 장손의 결혼식이 파국으로 치닫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성경자가 거짓 출도 연기를 펼친 코믹 엔딩이 화제를 모으면서 그는 ‘엔딩 요정’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엔딩요정’이라고요? 어마나 진짜 그렇게 말해요? 너무 기분 좋네요”라며 활짝 웃은 그는 “후배들이 나를 응원하고 배려해주셔서 힘들다가도 거기에 다시 힘을 낸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전광렬 씨가 녹화장에서 후배들에게 ‘야 너네 다 일어나’라더니 ‘전부 선생님께 박수’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가 눈물 나려고 하네요. 후배들이 내가 분량이 너무 많은 것을 안스러워해요.

정혜선은 1960년 KBS 공채 1기 탤런트로 출발했다. 연기인생 57년. 그는 최근에만도 ‘미녀 공심이’ ‘굿바이 미스

터 블랙’ ‘전설의 마녀’ ‘압구정 백야’ ‘유혹’ ‘신의 선물’ ‘백년의 유산’ 등에 줄줄이 출연하며 칠순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내가 쉬는 걸 몰랐어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7년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품을 해왔어요.”

술한 히트작에 출연해온 그는 대표작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제3지대’와 ‘간나이’, ‘아들과 딸’ 등을 꼽았다.

“제3지대’는 1966년 작품인데 연기의 ‘연’자도 모르던 내가 여주인공을 맡아 그 작품으로 영화와 같은 반응을 얻었어요. 드라마가 인기를 얻어 동명의 영화에도 출연했죠. 그걸 계기로 영화도 50여편 찍었어요. ‘홍콩에서 온 마담장’을 보면 나는 엑스트라였어요. (웃음) ‘간나이’는 1983년도 작품인데 40대인 내가 80대 노파를 맡았죠. ‘아들과 딸’ (1992)은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 내가 아들만 예뻐하고 딸을 구박하는 엄마여서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날 때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게요. (웃음)”

그렇게 즐기게 일했던 그는 2015년 73세가 돼서야 처음으로 1년여를 쉬었다.

“제가 1남2녀를 뒀는데 막내딸이 2015년 미국서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딸 결혼식에 맞춰 그때 처음으로 스케줄을 안 잡았고 쉬는 김에 호주 친구 집에 3개월 가 있는 등 1년 반을 쉬었어요. 그렇게 쉬었던 덕분에 그 에너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개봉 첫 주말 ‘박열’ 웃고 ‘리얼’ 울었다

‘박열’ 주말 박스오피스 1위·118만 관객 동원

이준익 감독의 신작 ‘박열’이 주말 극장가를 장악했다. 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박열’은 지난 주말 이틀간(1~2일) 총 64만3588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개봉 이래 흥행 1위를 지키면서 누적 관객 118만 136명을 기록했다. 주말 매출액 점유율은 49%에 이른다.

같은 날 간판을 내건 김수현 주연의 ‘리얼’은 개봉 첫날 2위로 출발했지만, 주말 이틀간 11만8425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쳐 3위로 하락했다. 누적 관객은 37만3578명.

‘박열’과 ‘리얼’에 밀렸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는 29만287명의 관객을 더하며 다시 2위로 올라섰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는 상영권 계약에도 주말 이틀간 6만2372명을 동원하며 4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은 11만1803명이다.

비 멀티플렉스에서만 상영되는 ‘옥자’의 스크린 수는 111개로, ‘박열’ (1172개)과 ‘리얼’ (679개) 등 경쟁작보다 훨씬 적다. 주말 이틀간 좌석 점유율은 48.9%로 경쟁작 중 최고였고, 지난 1일의 좌석 점유율은 56.1%에 달했다.

이밖에 28일 개봉한 할리우드 성장드라마 ‘지랄발광 17세’가 1만9721명의 관객을 모아 ‘미이라’ (3만2291명), ‘하루’ (2만1163명)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김옥빈 주연의 ‘악녀’ (1만5013명), 애니메이션 ‘부나베어 : 로거릭 컴백 홈 프로젝트’ (1만4133명)와 ‘언더더서’ (1만2772명)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오는 5일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 홈커밍’이 오전 7시 40분 현재 실시간 예매율 56.6%로 1위를 달리고 있어 5일 이후 박스오피스 판도가 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관수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유명인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 아침
10	00 유명인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국회인사청문회 유명인 미래청조사과부장관 후보자
11		00 1대 100(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밤비바침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총조립 55 특목 보합설(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밤(재)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0 특소는 인터뷰 소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텔레몬스터 25 독?독! 키즈스쿨 55 수빈 스토리 2	00 뉴스브리핑
3	00 명견만리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자동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별별머리(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재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적인 한밤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밤비바침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독립영화관 (걷기왕)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2부 강의 사들)	09:40 성년 돌고기(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조기찌개와 감자 날치알무침)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레이디 비그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바다에 미친 40년 병어잡이 선장)
07:30 로보카 폴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07:45 출동! 슈퍼홀리	13:40 장수의 비밀(재)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레이디비그
08:30 플라워링 하트	15:00 요술 상자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응감한 소방차 레이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시간의 중심에 서서 에코로드)
15:20 우주탐험가 잭	21:30 한국기행 (나는 편이다 2부 황구에 그들이 산다)
15:35 모피와 친구들	21:50 EBS 다큐프라임 (66세 누님의 사랑 -신장익식 외)
15:45 시계마을 타기톡!	22:45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스리랑카에서 온 남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66세 누님의 사랑 -신장익식 외)
16:30 두다다공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계춘할망)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깨무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4일 (음 5월 11일 壬辰)

子	48년생 승인의 여자는 중분하니 자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60년생 비단 옷을 입고 밭길을 걷는 격이다. 72년생 시시각각 변하는 위상이니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84년생 길사의 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52, 17	午	42년생 진중하게 견지한다면 마침내 성취하리라. 54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가 있을 것이리라. 66년생 길운이 순조로움을 부른다. 78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니 조심하라. 90년생 보류했을 때는 무리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25, 79
丑	49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뤄야 큰 것을 얻는다. 61년생 소급 팔러 나가리니 비가 내리는 이치이다. 73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성부의 관건이다. 85년생 천천히 하는 편이 완 벽함을 도모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63, 34	未	43년생 금전상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날이다. 55년생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67년생 과거에 묻어 두었던 비밀들의 실체가 드러난다. 79년생 길레가 거침없이 펼쳐지리라. 91년생 일 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3, 51
寅	50년생 눈앞에서의 현혹은 허황된 것이니 빨리 접수를록 이익이다. 62년생 밭길에 달마저 가우니 걱정부터 앞서리라. 74년생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6년생 보완한 한다면 달성 하리라. 행운의 숫자 : 64, 82	申	44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56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68년생 과거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80년생 참여하면 여러 가지 부가 적 이익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16, 14
卯	51년생 수줍어 아니라 실속임을 분명히 알자. 63년생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75년생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니라. 87년생 현재의 판세가 힘들더라도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사한다. 행운의 숫자 : 06, 81	酉	45년생 유독 빼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7년생 금식지킴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69년생 여유로움이 완벽함을 담보할 수 있다. 81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09, 24
辰	52년생 한 곳에만 편중하지 말고 관심의 시선을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돌려 볼 필요가 있다. 64년생 근거부터 확보해두자. 76년생 순서와 방법대로 행하라. 88년생 한 번의 실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0, 05	戌	46년생 미리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58년생 많은 재량이 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0년생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제대로 해야 언겠다. 82년생 부실함과 혼란이 보이는 과도기이다. 행운의 숫자 : 13, 58
巳	53년생 강력한 역할 관계 하에 놓이는 판세이니라. 65년생 문서에 이로우니 잘 활용해 보자. 77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89년생 기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4, 13	亥	47년생 길사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낀다. 59년생 유창한 능변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1년생 세절복에 신경 쓰다가 감각을 놓칠 수다. 83년생 수상하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2, 1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